

## < 위대한 기도 >

야고보서 5:17,18 / 새찬송가 70 (통일 79) 피난처 있으니

### 1. 누구나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기상을 주장했던 기도를 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 즉 최악의 성품을 가진 자였습니다(약5:17,18). 그런 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간절함’에 있을 것입니다(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왕상 18:42)). 이는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 2.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 했습니다

간절함은 간절한 소원에서 나옵니다(빌2:13).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여러 동기로 소원을 갖기는 쉬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소원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한 소원,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소원은 처음에는 간절하다가도 나중에 사라지며 허무감으로 바뀌게 됩니다(전2:24,25). 왜냐하면 나를 기쁘게 하려는 소원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서 비롯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귀가 훔쳐서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마귀는 이를 위해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속여 나를 기쁘게 하려는 가짜 소원을 이루려고 삽니다. 가짜 소원은 변하게 되고 허무하게 됩니다. 참으로 변하지 않는 소원이 참 소원이며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입니다. 이런 소원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며 이런 소원을 갖는 것은 가장 먼저 주어지는 축복이며 이런 소원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리게 됩니다. 또 힘들지만 힘든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는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아들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즉 당시 부패한 제사장이었던 흠니와 비느하스를 대체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아들을 얻지 못하는 슬픔으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삼상1:3-8),(삼상1:10,11).

### 3.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 아합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왕상16:30-33).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자들을 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전역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기도로 대결해서 제단에 불이 내려오게 함으로써 그들을 이기고 다 척결하였습니다.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벌하는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미워하듯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4. 엘리야는 다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 이스라엘에서 제거되고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자 엘리야는 삼 년 육 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는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기도임을 말씀해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5. 위대한 기도의 순서는 먼저 악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 악을 제거함이 열 가지 선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도 나 자신의 악에 대한 심판을 이루는 기도, 즉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 <적용&실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즉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 어떤 간절한 소원을 갖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그 간절함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간절함입니까? 우리는 먼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해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